

독어의 국가변이형에 대한 연구¹⁾

정동규(경원대)

1. 머리말

변화란 그 속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통해 확인되는데, 현대사회에서 언어변화도 역시 해당 언어공동체의 보편적 언어 사용과 이해를 방해할 정도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날 확대되고 있는 통신 및 채팅언어의 사용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언어변화가 이루어지는 원동력을 언어 내적 작용력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언어 외적 작용력에서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19세기 훔볼트 Humboldt나 그립 Grimm, 쉘라이허 Schleicher 같은 언어연구자의 관심 속에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고,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의도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언어의 실질적이고도 궁극적인 생산자로서 인간의 실질적 관여는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사용을 통해 비로소 생명력을 부여받고 변화의 가능성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언어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인간 또는 화자-사회’라고 하는 순환적 고리를 언어변화의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들 중 어느 하나에 나타난 변화 유발요소는 고리를 따라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호의존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변화 속에는 언어 자체의 내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화자, 그리고 변화의 주체와 객체로서 존재하는 사회가 참여하여 초래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변화는 사회변화의 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고, 이 변화가 화자에 의해 비롯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변화는 언어의 구조나 표현 형태를 통해 표출되기 때문에, 필자는 이것들을 ‘언어변화의 3 요소 Tripel’라고 부르려고 한다.

1) 본 연구는 2002년도 경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논문에 대해 세심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때 언어변화에서 변화과정이나 변화형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변화 이전의 언어형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언어의 공시적 상태는 변화하고 있는 상태이며, 소쉬르 Saussure의 이론에서 가정된 유형과 같은 안정된 언어 상태는 이상화된 것이다. Sapir(1921:147)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누구나 언어가 가변적임을 알고 있다. 언어는 결코 균질적이지 않다. 하지만 언어에 대한 이론은 종종 언어가 마치 균질적인 실체인 것처럼 다루어 왔다. 실제로, Weinreich, Labov & Herzog(1968)에서는, 더 나아가 종래의 언어 이론들은 언어의 구조가 균질성에만 발견된다는 가정을 해 왔다는 지적을 하였다. 따라서 언어의 가변성은 종종 구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무시되어 왔다. 사실 균질성을 구조, 혹은 규칙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통속적 내지 비전문적인 태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어떤 변종—대개는 표준어—은 올바르고 규칙적이라고 간주되고, 다른 것들—대부분은 비표준 방언들—은 옳지 못하고, 비규칙적이고, 비문법적이며 정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진행 중에 있는 언어변화는 흔히 '실수'라고 인식된다. 따라서 누구나 언어는 가변적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언어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으며, 심지어 전문적인 언어학자들까지도 이와 동일한 사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균질적인 언어 상태는 이상화된 것이며 가변적인 언어 상태가 정상적이라는 것, 더 나아가 언어변이 그 자체는 구조화될 수도 있으며, 규칙적일 수도 있다.(정영인, 1998: 25, 재인용) 한편 민족어의 상이한 발전은 방언이나 계층어, 전문어 등과 같이 해당 언어공동체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독어를 비롯한 영어, 스페인어의 경우에서 보이는 소위 국가변이형 nationale Variante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언어변이형을 형성하게 된다.

이 연구는 독일 민족어가 특히 역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형성하게 된 언어적 변이형, 즉 국가변이형을 중심으로 야기된 논쟁들을 고찰하여 오늘날 특히 남과 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의 상이한 발전 모습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경험적 그리고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특히 다양한 지역에서 상이하게 발전된 언어를 대상으로 차별성과 함께 통일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해당 민족어의 영속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언어변화

언어변화는 Sprachwandel 이외에도 Sprachveränderung, Sprachentwicklung, Sprachrevolution 등으로 불리어지는데, 이러한 용어상의 차이는 언어적 변화 유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 사용자가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전후 분단과 더불어 독일 민족어의 분열이 문제가 될 때에는 주로 Sprachveränderung이 거론된 반면, 통일 후 서독어를 중심으로 한 동독어의 편입과정은 철저히 Sprachentwicklung의 입장에서 언급되었으며, 변화 속도에 대한 주목은 Sprachrevolution으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찰자의 주관으로부터 벗어나 변화 자체를 염두에 둔 Sprachwandel을 언어변화에 대한 중립적 표기로 삼으려고 한다.

이러한 표기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언어변화의 모습과 구분에 대한 기술유형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실정이다. 언어변화는 시간에 따라 언어요소와 언어체계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일컬으며, 언어변화는 다음과 같이 모든 언어적 차원에서 일어난다(Bußmann, 1990:721):

(a) 음운론에서는 음성학적, 음운론적, 유추적 그리고 언어 외적으로 야기된 변화로 구분된다.

(b) 형태론에서는 활용형태적 변화와 조어론상의 변화로 나뉜다. 이때 활용형태론 영역에서의 언어변화 과정은 예를 들어 인도유럽어에서 수, 격, 성, 화법, 시제 차이로 인해 형태론적 범주들이 어떻게 출현했느냐 하는 것이며, 조어론상의 언어변화는 특히 합성조어로부터 파생조어로의 변화과정에 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c) 통사론에서의 언어변화는 어순 즉 문장성분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때는 통사론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언어변화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고고지독어 Althochdeutsch에서 중고지독어 Mittelhochdeutsch로 넘어가는 시기에 나타난 말음탈락 현상은 기본적으로 음운론 상에서의 변화인데, 이 변화는 격체계의 형태론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으로부터 다시 문장성분의 위치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d) 의미론에서의 언어변화는 주로 각 언어단위에서의 의미변화로 나타난다.

이때 의미 변화에 대한 언어 내적 조건은 일반적으로 경제성, 즉 언어체계의 단순화 경향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동화현상과 같은 조음음성학적 단순화 문제에 대한 생리학적 조건들을 다루거나, 개별적인 표현수단이나 자질들을 해당 체계 속에서 대칭적으로 배분하려는 경향에 대한 구조적 내지 기능적 조건들을 취급한다. 한편 하나의 언어공동체 내에서 여러 상이한 언어변이형이나 인접한 외래어의 상호 작용 및 영향 등은 언어 외적 조건에 속한다.

그러나 변화가 언어의 주요한 특성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상이한 입장이 유지되었다. 적어도 19세기 역사언어학자나 언어의 구조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었던 초기 구조주의 시대에서는 언어가 사회적 변화와 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방식과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삶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정영인, 1998:58 재인용)

한편 앞서 제시한 언어변화의 3 요소 중에서 화자와 사회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것도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려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언어가 사회와 맺고 있는 관련성은 어느 시대에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언어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언어가 사회구성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나아가 그러한 사회활동의 결과물로서 존재하는 것은 언어와 사회의 상호 의존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언어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사회와 더불어 변화 과정 속에 놓이게 되고 변화를 주요한 특성으로 지니게 된다.

그렇다고 언어와 사회 사이에 언제나 일대일 대응관계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양상이 언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언어공동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둘 사이의 여러 가능한 연결점들이 모든 언어나 사회에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언어란 어떤 외적 '객관적' 실체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이해하도록 해 준다. 사물을 분류함으로써 일정한 구조를 사회적 세계에 부여하게 해 주고 그 구조의 모델을 구축하도록 언어는 도와준다. 그 좋은 예가 주 7일이라

는 서방개념이다. 원래 시간이란 자연적 단위로 구획된 어떤 것이 아닌데, 이 시간 개념들에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반영됨으로써 언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연 시간이 일정한 단위로 나뉘어진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Romaine, 1994:25) 그 결과 상이한 문화는 상이한 시간개념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를 전달하는 행위자로서 언어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경우, 어떤 두 언어도 동일한 사회적 현실을 표현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간주될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언어변화에 대한 온전한 접근을 위해서는 언어체계로 일컬어지는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와 화자를 고려한 화용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명백하다.

3. 표준어와 변이형

이제 표준어와 변이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자. 특히 표준어의 설정은 유럽의 근대화 작업에서 나타난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언어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변이형 개념은 언어변화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1 표준어

변이형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유럽의 각 민족들이 라틴어의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과 표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자. 중세 유럽의 식자자들에게는 어떠한 언어문제도 없었다. 라틴어라고 하는 전유럽적 통일어의 도움으로 모든 국경을 넘어 사상의 교환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유럽은 지적으로 하나의 영역으로 통일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16세기 각 민족들이 근대시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민족어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 인본주의자들은 고대의 원전에 대한 생각에 머물러 있었으며, 당시 사용되던 라틴어가 어휘와 문체에 있어서 얼마나 고대의 원전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에 대해 언급

했다. 이미 15세기에 인본주의자들은 라틴어의 붕괴와 황폐화를 우려하고 있었다. 라틴어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거의 모든 유럽어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의 각 언어들은 고유어에 대한 주도세력들의 무관심과 공적 소통상의 지위 상실을 통해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황폐화라는 현상 자체는 모든 유럽어의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고대의 원전의 도움으로 인본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라틴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혁신은 각 민족어에 대한 고찰을 촉진했다. 이를 통해 모국어와 학문어의 상호 독립적인 언어발전이 시작되었다. 로마 문화에서는 고도로 발달된 예술언어와 실용적 욕구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는 일상어 사이를 구분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고대의 법들을 로마 법으로 대체해 가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법률가들은 이러한 구분이 특히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필경사들은 법률적 비전문인들인 일반인들과의 나날의 교제에서 학문어인 라틴어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원래 그들은 라틴어로 되어있는 법률적 도그마와 비전문인의 언어에 대한 욕구가 상충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법률적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교육받은 법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15, 6세기의 법률적, 언어적 발전이 설정하고 있었던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따라서 단지 군주적 관청어의 찬란했던 언어적 본보기들만이 퇴색했던 것이 아니라, 이 관청어는 인본주의적으로 정제된 라틴어에 필적하지 못했음에도 라틴어의 법률용어들이 소위 통속 라틴어에서 차용된 좋지 않은 문장구성을 통해 독일어 표현과 합쳐지게 되었다.

로마-이태리 법의 수용은 독일이 아니라 북부 이태리와 남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로마의 통속법은 통속어의 원형을 만들었다. 정치적 통일과 문화에 있어서 점차 강력해지고 현존하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던 프랑스는 1634년 리슐리에 Richelieu의 주도로 <Académie Française>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추후에 프랑스에서 언어문제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얻었다. 당시 모든 프랑스 궁정의 언어는 불어였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모국어의 궁정의 권위에 의해 학문어로서 관철되는데 있어서 우위에 있었다. 한편 영국에서는 모국어의 보존이 별로 커다란 주제가 아니었다. 노르만인들과 함께 프랑스-라틴어 법률용어들이 영국에 들어 왔지만 영국 법

를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별로 커다란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용어들은 아주 실용적으로 잘 정돈되었으며 판사들은 일반법에서 소통 가능한 언어를 잘 가꾸어 나갔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태리에서는 인본주의가 통속언어적, 교훈적 문헌으로의 발전을 방해했다. 16세기 중반 무렵 인본주의적 라틴어와 여타의 방언이 몰락한 이후 토스카나어가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일상어를 차지하는 경쟁은 당시 이태리의 언어협회 중 가장 중요한 <Accademia della Crusca(1582년)>의 강력한 참여와 장려 하에서 플로렌스어-토스카나어 방언 쪽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독일제국에서는 오랫동안 라틴어라고 하는 학문어 이외에도 낡은 관청문서집과 판례집이 충분한 모국어의 사용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30년 전쟁의 결과 문화적, 도덕적으로 활기 있는 의식이 통용되기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 유럽언어들은 근대국가 형성에 대한 민족적 열망이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 — 한 민족, 한 언어 one nation, one language — 에 의해 조장 내지 촉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표준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표준어는 민족성과 같은 공유된 목표를 위한 두드러진 이념적 상징을 만들려는 필요로부터 부분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공통어의 표준화란 정치적 단결 과정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때 여기서 언급된 표준어란 사용상 광범위한 기능을 포괄하도록 발전되고 가꾸어진 고도로 전형화된 일종의 언어적 변이형에 해당하며, 표준화 과정은 다름 아닌 모국어화자와 외국인을 가르치는데 권위로 작용하는 사전이나 문법에서 철자와 문법 등을 고정시키거나 규칙화함으로써 다양성을 하나의 표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Romaine, 1994:85) 그러나 표준어는 오로지 다수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가 증가했다고 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표준어는 해당 언어사회의 주도세력에 의해 세심한 계획과 합목적성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때때로 표준화를 위한 주도세력의 시도가 언어조종이나 조작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던 간에 표준화의 목표는 언어적 편차를 제거하고 한 집단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는 단지 하나의 체계만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15-16 세기 소위 인본주의 이념과 함께 독자적인 민족국가 형성의

길로 나아갔던 많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이 시기를 잦은 전쟁과 혁명으로 보내야 했던 독일은 표준어를 관철시킬 주도세력이 등장하기까지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정동규, 1997, 1장 참고)

3.2 변이형

19세기 언어학은 바로 언어발달 내지 변화에 대한 연구라고 할 정도로 이 분야에 치중하였다. 이때는 주로 방언이 언어변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는 유일한 창구가 되었으며, 지리적 공간을 통한 언어형태의 분포를 관찰하는 이 작업은 역사사회언어학의 토대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소위 소장문법학자들의 언어적 관점에서 알 수 있듯이 반어적으로 무예외성 원칙이 방언에 대한 초기 연구를 지탱하는 가설이었다. 예를 들어 독어에서 $p > f$ 로의 음운 이동이 단일성의 기준이 되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언어형태가 방언적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이것은 당시의 연구들이 방언의 지역적 상이성 보다는 역사적 의미에 보다 경도되어 있었던 결과라고 판단한다. 게다가 언어는 사회적 차별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공간적으로는 동질적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가 19세기 언어연구의 대표적 관점이었다. 특히 이러한 견해는 슐라이허 Schleicher의 소위 언어계통이론 Stammbaumtheorie으로 확립되어 유럽의 여러 언어들이 상호 친족성 아래 통합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언어관에 대해 1870년 슈미트 Schmidt는 소위 파동이론 Wellentheorie를 통해 친족성과 차별화 개념에 의해 구축된 언어계통이론과 반대되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해당 사회의 언어집단 상호간에 접촉이 끊기는 경우 이들 사이에는 언어적 차별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비록 옳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의 언어집단 상호간에 접촉이 유지되는 한 언어들은 크건 작건 간에 부단히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역시 옳바르며 따라서 후자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슐라이허의 언어계통이론은 오로지 전자의 차별화에 대한 관점만을 고려하고 차별화와 통합 사이의 끊임없는 교체현상에 대해서는 옳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Reiffenstein, et al., 1983:9) 이러한 차별화와 통합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대부분의 언어연구

에서 주도적인 경향은 언어가 독자적인 삶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언어변화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언급하는데 있어서도 20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지역적 차이 즉 방언학과 관련을 맺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사회언어학자들은 언어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 상주 비율과 사회적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도시의 언어로 관심을 돌렸다. 도시화는 언어적 동일성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촉진했다. 즉 도시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어가 다양한 거주자들을 단일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반면, 여러 장소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은 다른 언어와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도시를 언어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집단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그러나 방언적 다양성 이외에도 점차 증가하는 도시화 현상은 언어의 변형에 반영되는 사회적 계층화의 증가를 통해 다양한 언어의 모습을 만들어 갔다. 이러한 도시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언어의 변화는 첫째 주민의 이주에 의한 언어의 다양성이 이루어지고 둘째 소통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어로의 단일화가 나타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함께 등장하는 사회적 계층화는 계층을 통한 표준어의 새로운 분산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언어의 상이한 유형에 개입하는 경계는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주는 지역적 방언이 전자라면 후자는 사회적 방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언어변이형에 대해 지역적으로 정의된 방언 Dialekt과, 사회적 공간에 기인하는 변이형은 사회적 Soziolekt,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전문어 Fachsprache 또는 특수어 Sondersprache 등의 변이 유형을 언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변이형이란 공통적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는 반면, 특수성은 보다 적게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언어 자체의 상이성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언어적 일탈에 관한 내용들은 주로 언어적, 사회적, 그리고 사회나 개인의 심리적 요소들의 통합적 관점이 일관하게 일치하는 언어공동체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에 관한 것이다. 적어도 동서독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독어의 상이한 형태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이형 개념이 용어상 그리고 개념적으로 필요하다. 필자는 이를 위해 잠정

적으로 하르통 Hartung에 의해 언급된 국가변이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987년 하르통은 스위스 베른에서의 8차 <Internationale Deutschlehrer-tagung in Bern>에서 다음의 언급을 했다: "아마도 의사소통전략에 대해 상이한 평가가 존재하며 또한 의사소통적 현실에 대한 여러 상이한 입장이 늘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통일적 언어인 독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러한 특수성을 국가변이형으로 부르려고 한다."(Fingerhut, 1991:17 재인용) 여기서 국가변이형이라는 개념은, 일단 용어상 국가라는 어휘의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체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자주성과 상이한 사회체제라는 조건 아래에서 언급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때 독어의 국가변이형을 언급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통일 이전의 독어 상황을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남과 북에서 상이한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말의 상이한 변화 모습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한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 독어의 변이형

방언의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적 문제로서 독어변이형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사실상 전후 동서독의 언어적 갈등이 초래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독어의 변이형 중에서 특히 국가변이형으로 지칭되는 서독과 동독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의 독어사용을 중심으로 각 변이형의 특징과 이에 대한 변이형 설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때 각 변이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하여 먼저 각 언어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서독의 경우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 지식에 따르기로 하겠다.

4.1 동독어

전후 독일 민족어의 이질화 과정은, 그 변화의 동기나 속도 그리고 범위나

정도에서 볼 때, 당시 독일 정치사의 전개 양상 또는 정치적 변화라고 하는 화맥 속에서만 올바르게 추적 가능하다. 1949년 4월 28일자 >Welt<지에 의하면 동독진영의 공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벌써 안내 책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Oschlies, 1990, 15) 비록 동독에서는 1951년 그리고 서독에서는 1954년에 나름대로의 새로운 정서법사전 Duden 이 마련되기 때문에 아직 종래의 Duden(13판)이 모두에게 여전히 통용되고 있어서 발음상 그리고 정서법 상으로는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독어의 이질화는 1949년 양독의 국가 형성 이전에 이미 시작되어, 전후 복구 문제와 양독 정치 질서의 재편이 논의되고 1946년 4월 각각 동독의 공산당 KPD 과 사민당 SPD 에 의해 사회주의를 공동목표로 하여 통합사회당 SED 이 형성되는 정치적 과도 상황에서 몇몇 어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집단 Kollektiv 은 오로지 사회주의적 원칙에 따른 공동작업의 경우를 지칭하게 되었고, 자유 Freiheit 는, 맑스의 프롤레타리아 세계관에 따라, 착취나 압제 그리고 소수나 외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정치적, 사회적 상태를 의미하여 맑스-레닌적 이념 그리고 사회주의적 사유나 행동양식의 틀 내에서만 비로소 논의 가능한 개념이 되었다.(Kempcke, 1984, 참고) 양독의 국가형성과 함께 독일의 민족어는 보다 다양하게 상호 이질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특히 동독의 언어발전에는 당의 지도적 역할과 관료적 통치가 주도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힘으로는 경제적, 노동조합적 관심 이상의 것을 형성할 능력이 없다는 레닌의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에게는 무엇이 역사적 사명인지를 알 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해 과학적 세계관을 지닌 당이 절대적 존재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Schlosser, 1991:34) 60년대까지 서독은 국제정치상의 역학과 독일 제3제국에 대한 집단적인 죄의식으로 인해 통일문제를 공론화 하지 않았으며 언어적으로도 양독어의 상이성을 정치, 사회적 질서의 차이에서 비롯된 이질화로 인정하고, 동독은 분단 후 사회주의적 혁명과 통합사회당 통치의 정치적, 이념적 명분으로 민족주의와 민족통일을 견지하여 언어적으로도 새로운 사회주의 조국 독일의 통일적 언어구축과 발전을 주장하였다. 한편 사회주의 언어문화란 동등한 수준의 창조적인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든 동독주민의 능력 이외에 사회주의적 의식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Schmidt, 1972:65)으로 이해되었

는데, 이를 위해서는 언어보호 — 표준어의 규범을 언어생활에서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 — 가 필요하였다. 이때 동독에서 추구하는 규범이란 첫째 독어를 국가사회주의의 어휘로부터 정화시키고, 둘째 영미표현의 과도한 유입으로부터 모국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언어학적 결과가 바로 1964년에 출판되기 시작하여 1977년 완간된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R.Klappenbach/W.Steinitz)』 과 1984년 출판된 『Hand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G.Kempcke)』 이었다.(Schmitt, 1993:89) 일상적 의사소통에서의 차이는 전통적 독일어휘들이 동독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서도 발견된다. 이것들은 때때로 서독의 척도에 따르면 ‘호의적인 구식 liebenswert altmodisch’으로 불리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동독사회의 폐쇄성과 경쟁장치 없는 경쟁체제에 의한 언어의 침체로 간주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서독의 언어가 사회적 역동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여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과거의 언어전통도 과거 속으로 묻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다(Schroeter, 1994:12); barmen 슬퍼하다/올다, Anrichte 살감/음식상/찬장 등. 한편 분단 기간동안 상이하게 발간된 Duden(14판-19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독에서도 Duden(Leipzig)은 문어적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서독의 Duden(Mannheim)과는 언어체계가 아니라 앞서 언급된 어휘를 중심으로 언어 사용상의 몇몇 차이가 존재할 뿐이었다.

전후 양독에 있어서 독어의 분열 또는 이질화로 지칭되는 상이한 언어적 발전은 순수한 언어학적 측면을 넘어서는 현상이었다. 양독에서 언어분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독일의 정치적 분열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을 나타내는 양상을 지녔으며, 아울러 분단 40년 동안 이 논의는 독일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소위 독-독 문제에서의 주제로 취급되었고, 통일 이후에는 민족통합이라는 의미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독어가 영어나 스페인어처럼 각 변이형들이 나름대로의 규범을 지니는 몇몇 국가적 변이형으로 구성된 복수 중심적 언어라는 견해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독어권에서 독어가 지닌 정치적, 문화적 특수성이 고려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어는 각 소통지역에서 특히 어휘, 단어사용, 문체규범 및 의미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자신들의 변이형을 발전시켰으므로, 비록 오늘날의 독일이 주민 수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여 다른 변이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라도, 각 변이형들은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것으로 어느 변이형도 다른 것에 대해 척도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다. 그리고 독어권에서 언어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 그리고 문화사적인 면에 있어서 국가 내지 민족의 통일이라는 문제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랫동안 독어사용권은 결코 정치적으로 통일된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공동체였으며 이때 지역적 특성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용인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장려되기까지 했다.(Schroeter, 1994:1) 따라서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치적 통일의 대체물로서 그리고 정치적 통일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서 언어를 통해 중재되는 문화적 공통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오스트리아 독어

1806년 독일제국이 해체되면서 적어도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정치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19세기에서 1918년까지는 당시 독일에서 통용되는 언어규범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1918년 오스트리아가 국가로 독립을 하고 1930년대부터 새로운 공화국의 형성과 관련된 애국심이 사회적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통용되는 독어의 특성들이 독자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나아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의 모험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형성된 오스트리아 제2공화국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독어가 사회적으로 보다 확고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1951년 출판된 『Österreichisches Wörterbuch』는 스스로를 “훌륭하고도 올바른 독일 공통어 사전 Wörterbuch der huten, richtigen deutschen Gemeinsprache”(Reiffenstein, 1983:15)이라고 언명하는 상태가 되었다.

본질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어는 어휘에 있어서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독어의 표준어와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구어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오히려 몇몇 전문적인 화자의 경우 - 예를 들어 방송국의 아나운서 - 가 예외에 해당하며 발음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어표현은 방언으로서의 독자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Reiffenstein, 1983:21ff) 예를 들어 통사론적으로 sitzen, liegen, stehen은 완료형에서 오로지 sein과만 결합하고,

weil로 시작되는 문장이 주문장의 어순을 따르고 — 이것은 문어에서는 틀리지만, 구어에서는 거의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 Vater와 Mutter 앞에 정관사가 나타나듯이 인명 앞에서도 정관사(der Hans, die Frau Müller 등)가 사용된다. 음성음운론적으로도 독어 표준발음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österr. Bass(<Pass), Dach(<Tag), Garten(<Karten), Muse(<Musse). 또한 초성의 s-는 늘 무성음으로 발음되고, 이중모음 [ai, au, oy]는 [æe, ao, œe]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모음 뒤의 -r은 철저히 모음화 되고 있다. 나아가 화용론적으로는 정중함이나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사말 Habe die Ehre, gehorsamster/geschamster Diener는 낡거나 시대에 뒤진 표현이지만 Küß' die Hand 와 함께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gnädige(gnä') Frau도 호칭에서 정중한 표현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편지의 말미에서 hochachtungsvoll이나 mit vorzüglicher Hochachtung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1970년대부터는 Du 호칭의 사용이 널리 퍼져서 심지어 Du, Herr Bundeskanzler 처럼 정중한 표현과 병기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날 오스트리아 독어는 이상에서 언급한 차이를 유지해 가면서 여전히 자신의 고유한 방언적 특성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들의 표현을 훌륭한 독어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4.3 스위스 독어

스위스 독어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스위스의 모든 독어 사용계층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소통어로서 의식적으로 통용되면서 자신의 고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원래 스위스의 독어사용자에게는 오랫동안 북부독일의 언어적 전통이 '훌륭한 독어 das gute Deutsch'로 간주되었다. 심지어 스위스 언어학자 박 커나겔 Wackernagel은 “각 지역의 방언적 어법과 조약한 표현 그리고 낡은 고어적 표현과 무분별한 신조어가 문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독일 문어의 규범과 품위를 위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진단은 19세기 후반뿐만 아니라 20세기 초까지도 스위스의 독어 사용에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Schwarzenbach, 1969:17) 따라서 스위스의 표준적 독어사

용에 있어서 지역적 표현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논란과 우려가 함께 있어서, 적어도 1930년대와 40년대를 거치면서 스위스가 정치적으로 독일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러한 일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50년대 스위스에서 발행된 사전에서는 지역어휘의 수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비록 문어에 있어서 스위스 독어사용자가 Duden 규정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토독어와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어휘에 있다.(Schläpfer, 1979:152ff) 본토독어 Hauswart에 해당하는 Hausmeister는 'Hausbesitzer'의 의미로 사용되고, die/der Jupe 'Jacke, Wams'에 해당하는 der Jupe는 'Halbrock', Flurbereinigung이라는 표현은 'die Zusammenlegung und neuaufteilung von zersplittertem landwirtschaftlichem Grundbesitz' 대신 'Meinungsverschiedenheiten ausräumen'의 의미로 사용된다. 문법적 성에 대한 차이도 있어서 der Bikini 대신 das Bikini, das Foto 대신 die Foto, das Radio 대신 der Radio, das/der Meter 대신 der Meter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스위스의 어휘 사용에서 보이는 남다른 특징은 고유한 방언과 외래어 특히 프랑스어를 어원으로 하는 어휘(Estrich, Beige, Biswind, Müsli, Kehr 등과 Adjunkt, Billet, Kondukteur, Passepartout, chic 등)가 매우 풍부하다는 것이다. 이때 이미 본토에서는 오래 전에 사용이 멈추거나 언어정화 차원에서 사라진 외래어와 관련된 후자의 특성은 첫째 오랫동안 사용된 외래어의 급격한 폐지에 거부감을 느끼는 스위스 독어사용자의 보수성과, 둘째 로만어 언어권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과 잦은 교류, 그리고 셋째 독일의 민족주의적 국수주의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Schilling, 1970:217) 한편 속어적 표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Es ist ihm etwas über die Leber gekrochen 'eine Laus ist ihm über die Leber gelaufen', den Schalk im Nacken haben 'den Schelm im nacken haben', bis über die Ohren in Schulden stecken 'bis an die Ohren verschuldet sein' 등.

이상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스위스의 독어사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3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Koller, 1992:35):

- 1) 구어로서의 스위스 독어 Schweizerdeutsch, die gesprochene Sprache
- 2) 문어로서의 독어 Schriftsprache, die geschriebene Sprache

3) 스위스 표준독어 또는 구어체 문어독어 Schweizer Hochdeutsch oder gesprochene Schriftdeutsch

여기서 첫 번째 형태인 구어로서의 스위스 독어란 스위스에서 구어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 상황적 그리고 대화주제 상의 제한 없이 두루 사용되는 독어로서 여러 상이한 스위스 방언 — 베른 독어, 쥐리히 독어, 바셀 독어 등 — 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어로서의 독어란 특별히 스위스의 언어상황에서 허용된 어휘나 몇몇 형태-통사론적 특징 그리고 문체적 표현들을 제외하고는 소위 Duden의 표준규칙에 따라 서법을 유지하고 있는 언어형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스위스 표준독어는 스위스의 독어사용자들에 의해 구어적으로 채택된 독어표준어로서 음성학적 그리고 통사, 문체적으로 스위스의 독어사용자들에 의해 사회적 내지 지역적 차이를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통용 가능하도록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어적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의 스위스 방언과 구별된다. 또한 스위스 표준독어는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두 번째의 문어 형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어와 관련성을 지닌다.

4.4 단일중심주의와 복수중심주의

80년대 양독의 언어 연구에서는 독어의 변이형 논쟁이 주류를 이루었다. 70년대 초 두 개의 독일국가라는 정치적 입장에 바탕을 두고 서독의 국가개념을 반박하고 통일적 독일 민족어의 거부를 위해 언급된 레르히너 Lerchner의 4-변이형(동서독,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대한 주장이 슈미트 Schmidt에 의해 서독어가 부르조아의 언어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변이형(1978:7)으로 규정된 이후 양독에 변이형 논쟁을 이끌었다. 기본적으로 양독의 언어를 하나의 변이형(3-변이형) 또는 두 개의 변이형(4-변이형)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변이형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달린 것이지만, 이 논쟁의 학문적 의의는 민족이나 국가의 장래와 같은 국가적 문제와 얼마나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국가적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던 동독에서는 4-변이형이 시종일관 주장되었고, 서독에서는 이 논쟁을 종래에 이루

어진 언어 연구의 정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동독에 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4.4.1 단일중심주의

모저 Moser에 의해 대표되는 단일중심주의는 언어구조적 차이가 아니라 기능이나 사용과 결부된 기준, 즉 어휘와 의미적 차이에 입각하고 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역에서 발전된 변이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Moser, 1985 참고):

- 1) 본토독어 Hauptform Binnendeutsch: Hauptvariante BRD, Variante DDR.
- 2) 지역변이형 regionale Variante: Österreich, Schweiz.
- 3) 불어권 서부변이형 Westvariante
: Letzeburgisch, Elsässisch, Lothringisch, Belgiendeutsch.
- 4) 영어권 해외변이형 Überseevariante
: USA, Canada, Australien, Neuseeland, Südafrika, Namibia.
- 5) 라틴 아메리카권 Überseevariante
: Brasilien, Argentinien, übriges Lateinamerika.

이 견해는 서독어가 다른 변이형을 판정하는 규범이 되며 원래의 독어가 서독에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패권적 주장을 암암리에 지니고 있어서, 동독은 물론 서독에서도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4.4.2 복수중심주의

이미 1978년 클로스 Kloss에 의해 제안된 복수중심주의는 본토독어 Binnendeutsch에 대한 개념이 거부되면서 복수적 언어문화로 받아들여졌다. 이 언어관에 따르면 상이한 변이형들은 동등한 자격을 지녀 상호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병렬적 지위를 지니게 되므로, 표준어도 각 독어사용국가에서 복수중심적, 즉 동등한 자격을 지니는 여러 종류를 일컫는다는 개념이다. 이 견해는 대

부분의 서독학자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동독에서도 유사한 입장이 주장되었다 (Hartung, 1986, Fleischer, 1989 참고).

이상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국가변이형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재고해야될 문제가 남아있다. 2장에서 살펴본 대로 국가변이형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국가적 자주성과 상이한 사회체제는 매우 중요한 조건에 해당했다. 이때 국가의식을 가지고 국가변이형을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언어 외적으로 경도된 것으로 오히려 국가변이형이라면 언어 외적 요소와 함께 음성적-문법적 체계와 어휘 체계 등에서 특수성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언어체계적 차이를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 외적 요소뿐만 아니라, 특수한 사회관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명명상 그리고 의사소통상의 욕구에 기인한 어휘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에라도 고유한 국가변이형을 언급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어휘란 한 언어의 가장 불안정한 영역이며 전체 체계를 구성하는 단지 한 부분일 뿐이다. 곧 미시적으로 어휘적 차이에 기인하는 국가변이형의 설정은 지지를 받기 곤란하다.

게다가 언어와 사회와의 관련성에 비추어볼 때, 국가변이형에서 언어공동체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 언어공동체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화자의 집단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지속적이고도 빈번한 상호교류를 통해 공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화자의 집합이어야 하며, 단순한 객관적 언어사용상의 객관성 유지 못지 않게 정서와 사회적 지향점에 있어서 동류에 속하는 집단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동일한 역사의식을 공유하는 문화적, 민족적 지위와 관련을 맺는 배타적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르통의 제안대로 의사소통공동체 개념을 통해 국가변이형을 취급하는 것도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란 사회적 지식의 적응을 위한 도구인데, 이 적응은 물론 언어공동체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집단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언어적 내용에 개별 화자가 적응하는 것은 집단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며 늘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국가차원에서의 의사소통공동체인 것이다.”(Fingerhut, 1991:21)

그러나 국가변이형을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사소통공동체 개념을 통해 문화적 그리고 민족적 부담을 벗고 보다 해당 화자가 속한 사회적 의미가 부

각되었다고 해도, 앞서 언급한 대로, 국가적 자주성, 상이한 사회체제에 덧붙여 고유한 내적 통일성을 지닌 규범체계를 고려한다면 독어의 진정한 국가변이형은 설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각 국가변이형에서 보이는 언어적 차이는 독어의 형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상호 이해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어휘적 내지는 의미적 차이와 관련된 언어사용에 대한 것이므로, 이것을 내적 규범체계에서의 차이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편으로 클로스는 독어를 영어나 스페인어 등과 같이 복수중심적 표준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Kloss, 1978:66f), 다른 한편으로 클라인 Clyne의 견해에 따라 독어의 상황은 국가변이형이 아니라 4개의 독자적인 의사소통공동체(동서독,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각각 특수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독어라는 주장(Fingerhut, 1991:23)도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

언어란 원래 단일화가 아니라 언제나 다양화 속에서 그 본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에서 단일성 내지 균질성이란 추상적 개념에만 의지하려고 할 때 다양성 내지 이질성을 통해 드러나는 언어의 실체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영어를 사용하는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다양화로 인해 일찍이 통일적인 표준어라는 허구가 포기되었으며 개별적인 변이형들과 초국가적 표준어와의 비교가 학문적으로 더 이상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그것이 단일 중심적이건 아니면 복수 중심적이건 간에 국가변이형을 통해 독어의 현실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언어체계의 차원에서 각 언어형태의 발전 모습을 조금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남은 문제

변이형을 논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문제는 언어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 요인의 정도를 얼마나 고려해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변이형의 발생은 언어적 특성보다는 사회적 특성을 보다 강력하게 지니면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독어의 국가변이형을 취급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필자가 독어의 국가변이형의 설정에 대해 흔쾌히 동의하기 못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국가변이형을 언급할 정도의 내적 규범상의 차이가 동서독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의 의사소통공동체에서 충분히 등장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아울러 1996년 정서법 통일화 작업에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모든 독어사용 국가가 부분적인 불편함과 고유한 지역성을 양보하면서까지 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변화된 정치, 경제적 위상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고 오히려 각 의사소통공동체에 있어서 사용상의 차이가 언어체계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여전히 독어의 언어사용에 있어서 적어도 문어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문제는 우리나라의 남북한어는 변이형의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이미 북한에서는 남한과 구별되는 내적 체계로서의 새로운 국어를 소위 문화어라는 이름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우리에게도 북한 이외에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국어 사용자가 소위 재외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의 국어 사용에 대한 변이형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자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참고문헌

- 정동규(1997): *독어정서법의 형성과 발전*, 담론사, 서울.
- 정영인 외 역(1998): *언어변이와 변화*, 태학사, 서울.
- Brandt, A./R.Freudenberg,(1983): *Tendenzen, Formen und Strukturen der deutschen Standardsprache nach 1945*, Elwert, Marburg.
- Bußmann, H.(1990):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Kröner.
- Clyne, H.(1984): *Language and Society in the German-speaking countries*, Cambridge.
- Fingerhut, M.(1991): *Fußballberichterstattung in Ost und West*, Peter Lang, Frankfurt.
- Fleischer, W.(1989): Zur Situation der deutschen Sprache heute, in: ZPSK 42,

- Akademie Verlag, Berlin, 435-442.
- Hartung, W.(1986): Angewandte Soziolinguistik; Forschungsperspektiven in der Bewahrung, in: *Perspektiven der angewandten Soziolinguistik*(1986), M.Hartig(hrsg.), Gunter Narr, Tübingen, 9-21.
- Keller, W.(1992): *Deutsche in der Deutschschweiz*, Verlag Sauerländer, Aarau/Frankfurt am Main/Salzburg.
- Kempcke,G.(1984): *Hand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Akademie Verlag, Berlin.
- Kloss, H.(1978): *Die Entwicklung neuer germanischer Kultursprache seit 1880*, 2.Aufl.(Sprache der Gegenwart 37), Düsseldorf.
- Koller, W.(1992): *Deutsch in der Deutschschweiz*, Verlag Sauerländer, Aarau/Frankfurt/Salzburg.
- Lechner, G.(1974): Zur Spezifik der Gebrauchweise der deutschen Sprache in der DDR und ihre gesellschaftliche Determination, in: *Deutsch als Fremdsprache* 11, 259-265.
- Mattheier, M.J.(1984): Allgemeine Aspekte einer Theorie des Sprachwandels, in: *Sprachgeschichte. Ein Handbuch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und ihrer Forschung*(1984), Bd.2.1, Walter de Gruyter, Berlin/New York, 720-730.
- Moser, H.(1985): Die Entwicklung der deutschen Sprache seit 1945, in: *Sprachgeschichte. Ein Handbuch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und ihrer Forschung*(1985), Bd.2.2, Walter de Gruyter, Berlin/New York, 1678-1707.
- Oschlies, W.(1990): *Wir sind das Volk*, Köln/Wien.
- Reiffenstein, I.(1983): Deutsch in Österreich, in: *Tendenzen, Formen und Strukturen der deutschen Standardsprache nach 1945*, Brandt,W./R.Freudenberg(hrsg.), Elwert, Marburg, 15-28.
- Romaine, S.(1994): *Language in Society*, Oxford Uni. Press.
- Rupp, H.(1983): Deutsch in der Schweiz, in: *Tendenzen, Formen und Strukturen der deutschen Standardsprache nach 1945*, Brandt,W./R.Freud-

- denberg(hrsg.), Elwert, Marburg, 29-40.
- Schilling, R.(1970): *Romanische Elemente im Schweizerhochdeutschen*, Duden Beiträge 38, Mannheim.
- Schläpfer, R.(1979): Schweizerhochdeutsch und Binnendeutsch, in: *Standard und Dialekt*(1979), Löffler,H. et.al.(hrsg.), Franke Verlag, München (=Festschrift für H. Rupp zum 60. Geburtstag), 151-163.
- Schlosser, H.D.(1991): *Kommunikationsbedingen und Alltagssprache in der ehemaligen DDR*, Hamburg.
- Schmidt, G.D.(1978): Neues im Wortschatz der deutschen Sprache, in: *Deutsche Sprache*(1978), Jg.6, 323-345
- _____ (1983): Die deutschen Varianten des Deutschen, in: *Muttersprache*, Jg.93, 284-289.
- Schmidt, J.(1973): Zum Verhältnis von Geschichte und Sprache, in: *ZPSK* 26, Akademie Verlag, Berlin, 501-510.
- Schmidt,W.(1972): Theoretische und praktische Aspekte des Muttersprachunterrichts in der sozialistischen Schule, in: *ZPSK* 25, 65-78.
- Schmitt, D.(1993): *Doktrin und Sprache in der ehemaligen DDR bis 1989*, Peter Lang, Frankfurt am Main/Berlin
- Schroeter, S.(1994): *Die Sprache der DDR im Spiegel ihrer Literatur*, Walter de Gruyter, Berlin/New York.
- Schwarzenbach, R.(1969): *Die Stellung der Mundart in der deutschsprachigen Schweiz*. Beiträge zur schweizdeutschen Mundartforschung Bd.17, Frauenfeld.

Zusammenfassung

Zur nationalen Varianten des Deutschen

Chung, Dong-Gyu(Kyungwon Univ.)

Es ist eine häufige Erscheinung, dass das Verbreitungsgebiet einer Sprache mehrere selbständige Staaten umfasst, die an die verschiedene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systeme angeschlossen werden und als die voneinander getrennte Kommunikationsgemeinschaften funktionieren.

Aus diesem Aspekt kann die Frage gestellt werden, ob es in den verschiedenen deutschsprachigen Staaten zur Ausbildung von nationalen Varianten des Deutschen käme. Aber um von nationalen Varianten gesprochen werden zu können, reichen nationale Souveränität, abweichendes Gesellschaftssystem und wenige lexikalische Besonderheiten jedenfalls nicht aus. Dafür müsste ein Kriterium eines sprachlichen Normensystem noch erfüllt werden. Es wird relativ leicht widerlegen lassen, dass die sprachlichen Besonderheiten in den deutschsprachigen Staaten zur Ausbildung einer nationalen Variante führen sollten.

Die Entwicklungstendenzen des Deutschen könne ein Vorbild für die Betrachtung über die Divergenz des Koreanischen sein. Aber systematische Analysen der nationalen Varianten im Koreanischen stehen leider noch aus. Somit muss intuitiv und unvollständig bleiben, was sich über Besonderheiten der nationalen Varianten im Koreanischen sagen lässt. Das ist noch eine zu lösende Aufgabe.

[검색어] 언어변화, 변이형, 표준어
Sprachwandel, Variante, Standardsprache

정동규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 65

경원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dgchung@mail.kyungwon.ac.kr